

전북 로봇산업 육성 · 새만금 활성화 '맞손'

전북테크노파크-한국로봇융합연구원, 공동 협력 기반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전북 로봇산업 육성과 새만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지난 3일 전북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원장 강기원)과 '지역로봇산업 및 새만금 지구 활성화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3일 전북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지역로봇산업 및 새만금 지구 활성화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만금 지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로봇산업 발전 방향과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원을 비롯해 재난안전·방산·해상에너지·농업로봇 분야 기술개발 및 실증, 중장기 신규사업 공동 기획과 정보교류, 지역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공유 및 실증 지원, 기술이전과 사업화·창업 지원,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로봇산업 성장 지

원 역량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재난안전로봇, 국방로봇, 농업로봇 분야 연구 역량을 연계해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규택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산업과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신규 국가사업 유치,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혁신 거점기관으로 방위산업과 이차전지, 디지털 융합, 에너지산업 등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재난안전과 국방, 해양, 농업 분야 로봇 기술 개발과 실증을 수행하는 국내 로봇 전문 생산기술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국내 기술 '세계 기준' 됐다

국내 연구진 개발 그래핀 품질 평가 국제표준 제정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그래핀 품질 평가 시험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서 차세대 배터리와 전자부품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홍승현 교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진흥원이 지원하고 국민대학교 홍승현 교수와 한양대학교 정문석 교수가 공동 연구한 산화 그래핀(Graphene Oxide·GO) 환원도 측정법이 지난 6월 10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으로 공식 출원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표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추진한 '표준 아이템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처음 발굴된 시험법으로, 산화 그래핀과 환원된 산화 그래핀(rGO)의 환원 정도를

자외선-가시광선 흡수분광법(UV-Vis)으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래핀은 뛰어난 전기·열전도성을 갖춘 차세대 소재지만 제조 과정에서 산화되면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 과정을 거친 환원된 산화 그래핀은 환원 정도에 따라 전기전도도와 열전도율 등 핵심 성능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소재 품질 확보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이번 국제표준은 기존의 고가 분석장비 대신 산업 현장에서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외선-가시광선 흡수분광법을 적용해 시료를 빠르고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그래핀 소재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 데이터 비교와 활용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929조원 규모 해외투자 자산 관리 맡는다

해외투자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민연금공단이 929조 원 규모의 해외투자 자산을 보관·관리할 해외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글로벌 투자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2027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보관과 결제, 자산관리, 사무관리 등을 담당할 해외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를 1순위, The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tion

을 2순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 해외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설명회와 제안서 심사,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해외 직접투자 확대와 투자 다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수준의 자산관리 역량을 갖춘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 수탁기관은 국민연금기금의 해

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보관과 결제, 자산관리, 사무관리, 미들서비스 등을 수행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금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투자 집행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수탁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뒤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을 구분해 자산별 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해외 대체투자 자산은 해외주식 수탁기관

이 함께 관리하게 된다. 공단은 세부 기술 협상을 거쳐 내년 초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기본 3년에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4월 말 기준 적립금이 1천670조7천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55.7%인 약 929조 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자산별로는 해외주식 604조5천억 원, 해외채권 103조1천억 원, 해외 대체투자 221조4천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오상근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2일 세종에서 회장단과 운영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화합·역량 강화'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KB금융, 소상공인 상생장터 개최

국민연금공단과 KB금융그룹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직거래 장터를 연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나흘간 본부 행복연금관 1층 로비에서 KB금융그룹과 공동으로 '금융타운-오픈 스토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타운-오픈 스토어'는 전북혁신도시 내 KB금융타운 조성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공공·민간 협력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역과 혁신도시

소상공인, 정읍시의 '카페 샘샘',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 등 모두 26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 상품은 행사 기간 동안 10%에서 최대 50%까지 특별 할인 판매된다. 참여 소상공인에게 현대백화점 입점 업체와의 합동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백화점 입점 기회와 무료 경영 컨설팅도 지원해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기간인 7일과 8일에는 행복연금관 1층 은누리홀에서 임직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 '골든 클래스'도 열린다. /오상근 기자

전북신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시작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를 시작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한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

금, 대환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자금별로 대출 기간과 금리 등 지원 조건은 다르게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2~4% 수준으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됐으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리대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플랫폼인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 정책자금 연계 일반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세종서 운영위원 결속다져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장소재철)는 지난 2일 세종에서 회장단과 운영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화합·역량 강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안심 등 협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협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지역 건설업계와 긴밀한 협력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조달청 공사입찰 점검팀 출범에 따라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기존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던 간이종합심사제가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된 내용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소재철 회장은 "회원 간 화합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건설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을 지속 마련해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힘써 지역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